

# 이천의 이야기

- 대월면 설화자료집 -



'이천문화'는 이천 지역의 문화를 말한다. 하지만 '이천'이라는 지역에서 행해지는 창작, 예술 활동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천문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활동이 다른 지역에서도 별 문제의식 없이 행해지는 범용적 문화 활동이라면 그것이 이천의 문화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단순히 '이천'이라는 지리적 공간 영역에 의해서 모아두었다고 해서 이천문화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천에 속하는 여러 지역문화를 총체적으로 가리켜 이천문화라 성을 가진 이천의 땅을 정의하고 그 꿈을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첫째, '이천'은 문화다. 지역성에 기반한다고 하는 이들이 주체적으로 문화를 바라보고 참여하며 행하는 활동으로, 이천 주민의 현재와 미래적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이천이라는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역사 속으로 전승하는 것이야말로 이천주민들에게 이천의 정체성을 가지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 '이천문화'는 다른 지역문화와 유 '이천문화'는 한 여러 읍·면 지 경기도문화와, 내 유거적으로 관 어야 한다. 이천



국문화, 민족문화, 그리고 역문화의 상위개념이기도 부적으로는 이천에 속해 있는 여러 읍·면지역의 문화와, 그리고 이천과 인접해있는 인근지역의 문화와 계를 맺으며 형성되어온 문화로 이해해야 한다. 셋째, '이천문화'는 역사적 과정과 맥락 속에서 이해되는 문화적 정체성은 사회·역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지리·환경적으로도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변화해 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삼국시대에는 한강유역이 삼국의 각축장이 되어 백제, 고구려, 신라 등으로 갈래가 바뀌었고, 고려와 조선, 근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란으로 인한 영향과 행정구역의 변천에 따른 편입과 분리가 있어왔다. 그리고 음죽군의 경우 오랫동안 서로 다른 행정단위로 관할되어온 경험으로 인해 다양한 지역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천문화는 여러 상이한 지역문화들이 서로 충돌하고 만나면서 형성되어온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서 얻어진 공동의 경험을 공유 게 하며 그 경험을 이천문화의 진정한 문화적 자산 기적인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경기도문화의 하위개념이면서 이천에 속해 있는 하다. 다시 말해서 이천문화는 위로는 한국문화,



## 9권. 대월면 설화자료집

### < 목 차 >

#### (1) 군량리

- 1-1) 군량리 병어리 멍꽁이와 강감찬 장군 / 2
- 1-2) 양각산 치마대와 이사성 / 5

대월면의 전설 자료는 거의 조사되지 않았다.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금번 조사에서 민요조사에 치중한 때문이다. 이천시의 전설자료집을 간행할 때 별도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천시에 널리 알려진 전설 1편만 전제한다.

### 1-1) 군량리 병어리 맹꽁이와 강감찬 장군

고려 현종(玄宗) 때 구국의 명장인 강감찬(姜邯贊) 장군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장군은 키가 5척 단신에다가, 유난히 큰 머리통에 어릴 때 마마를 앓아 곰보자국까지 있는 아주 못 생긴 용모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못 생긴 외모와는 달리 조정에서는 임금을 잘 보필하는 어진 신하요, 싸움터에 나가면 귀신같은 용병술로 적의 간담을 서늘케 한 천하의 용장이었다. 현종 9년(1018년), 거란 성종(聖宗)의 명을 받은 소배압(蕭排嘑)의 대군이 고려를 침공해 오자 장군이 상원수(上元帥)가 되어 귀주에서 적을 크게 무찌르니, 이 싸움이 우리 역사상 3대첩 중에 하나인 귀주대첩(龜州大捷)이다. 이 싸움에서 살아 돌아간 적군의 수효가 불과 수 천명을 넘지 못하였다고 하며 이 때 받은 타격으로 거란은 그 후 다시는 고려를 넘보지 못하였다.

장군이 일찍이 해주목사가 되어 부임했는데, 해주관아에서는 동헌 근처에 '부용당'이란 연못이 있었다. 때는 초여름이라 밤이 되면 부용당에 사는 맹꽁이 떼가 울어대기 시작하는데, 어찌나 시끄럽게 울어대는지 사람들이 잠을 이룰 수 없을 지경이었다. 며칠 밤 잠을 설친 강감찬 장군은 아무래도 그냥 두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부용당 연못에 있는 맹꽁이들을 모두 병어리로 만들어 버렸다. 장군이 맹꽁이들을 병어리로 만들어 버렸다는 소문이 한 입 건너 두 입으로 온 나라 안에 퍼져서 나중에는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임금은 즉시 강감찬 장군을 불러 그의 신기한 재주를 칭찬하고 더 높은 벼슬을 내렸다고 한다.

군량리 군들장터에서 1.5km가량 떨어진 뒷말에서는 지금도 맹꽁이의 울음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다고 한다. 맹꽁이가 있어도 이 마을에서는 입만 뻗 곳뻗 벌릴 뿐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주 오래 전에 고려 초기의 이야기이다. 이 마을에는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맹꽁이 떼들이 몰려와서 밤만 되면 마을이 떠나가도록 시끄럽게 울어대었다고 한다. 당장 귀가 아파 견

딜 수가 없는 데에다, 밤이면 시끄러운 소리로 동네가 모두 잠을 이루지 못하니 이만저만한 고통이 아니었다. 며칠 밤을 뜬눈으로 새운 마을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부락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맹꽁이들의 울음을 그치게 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 의논만 분분할 따름이었다.

그 날도 밤잠을 설쳐 눈이 시뻘겍게 충혈된 마을 사람들이 정자나무 밑에 모여 걱정을 나누고 있었다. 그 때 지나가던 길손 하나가 발걸음을 멈추고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유심히 듣더니 일행을 향해 물었다.

“초면에 실례하오만, 정말로 맹꽁이 소리가 그렇게도 시끄럽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보니, 그 사람은 자그마한 키에 흰 수염을 길게 늘인 어딘가 기품이 있어 보이는 노인이었다.

“알지도 못하면 노인장은 잠자코나 계슈.”

마을 사람들 중에 성미 급한 젊은이 하나가 노인에게 핀잔을 주었다.

“내 일찍이 해주 부용당 연못에 맹꽁이들이 하도 시끄럽게 울어서 사람들이 밤잠을 못 이루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소만 맹꽁이도 미물이기는 하나 다 하늘이 낸 생명이니, 그것들도 한 시절이 있어 암수가 서로 짝을 부르느라고 그러는 게 아니겠소.”

“아니, 이 양반이 누굴 약 올리려는 모양인데 당신이 맹꽁이 할아버지요 뭐요.”

노인에게 핀잔을 준 젊은이가 이렇게 말하며 팔을 걷고 나서자 그렇지 않아도 뾰족한 대책이 없어 걱정스럽던 마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노인을 비난하는 것이었다. 그 때, 마을의 장로 격인 노인이,

“모두들 그만 두시오. 이렇게 모여서 다툰다고 맹꽁이가 울음을 그치는 건 아니잖소.”

하며, 마을 사람들을 제지하고는 길손에게 물었다.

“대관절 노인장은 어디 사는 뉘시오?”

“나는 산천경계나 구경하며 떠돌아다니는 늙은이오만, 맹꽁이 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니 잘 믿어지지 않는구려.”

“겪어보지 않으면 우리들의 고충을 모르오. 오죽하면 밤잠을 못 자고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겠소. 개성이 가깝기나 해야 강감찬 장군을 모셔오던지 할텐데.. 그럴 수도 없으니 정말 걱정이요.

“그렇다면 내 귀로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 노인장 댁에서 하룻밤만 쉬어가

게 해주오."

"마음대로 하시오. 그렇지만 오늘밤 잠잘 생각은 아예 그만두는 게 좋겠소."

마을 노인이 승낙하여 길손은 그 날 저녁을 마을에서 지내게 되었다. 밤이 되자 과연 맹꽁이들이 와글와글 울어대기 시작하는데 길손이 듣기에 부용당 맹꽁이들보다도 더 지독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길손이 이튿날 날이 밝자 집주인을 부르더니,

"여러분의 고충을 이제야 알겠소. 내 비록 재주는 없으나 맹꽁이들을 다시는 못 울게 할 터이니 마을 사람들에게 일러 이곳의 왕 맹꽁이를 잡아오도록 하시오" 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마을의 어린이들까지 모두 동원하여 마침내 맹꽁이의 무리들 중에서 몸집이 제일 큰 맹꽁이 한 마리를 잡아 길손에게 주었다. 길손은 허리에 찬 주머니를 꺼내어 붉은 글씨로 부적을 한 장 그리더니 왕 맹꽁이의 등에 붙이고, 무어라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고 나더니,

"맹꽁이들아! 너희가 아무리 미물이기로서니 어찌하여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괴롭힌단 말이냐. 이제부터 이곳에서는 더 이상 소동을 부리지 말도록 해라" 하며, 사람에게 하듯 타이르고는 다시 놓아주었다.

과연, 그날 저녁부터 모든 맹꽁이들이 병어리가 되어 입만 뻥긋뻥긋 벌릴 뿐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딱 벌리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노인을 둘러싸고 치하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께서는 대관절 무엇 하는 분이기에 이처럼 신기한 재주를 갖고 계십니까?" 하고, 마을의 장로가 묻자, 노인은 그저 이름 없는 늙은이일 뿐이라고 겸손해 했다.

"노인장이 혹시 부용당 맹꽁이를 울지 못 하게 했다는 강감찬 장군이 아니신지요?" 마을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자, "맞아요! 저 분이 강감찬 장군이 틀림없소." 하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소리쳤다.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 그 노인이 바로 강감찬 장군이였다. 장군은 나이 많음을 핑계로 모든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산천경계를 구경하며 천하를 유람하던 길이었다. 마침 이천을 지나게 된 장군은 군량리 군들장터에 들려 장 구경을 한 후, 뒷말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맹꽁이들의 번고를 듣게 되었던 것이다.

장군이 마을을 떠난 뒤로도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장군의 은덕을 칭송했다. 이런 일이 있는 지 일천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곳 군량리 뒷말에는 맹꽂이가 있어도 모두 병어리가 되어 울지를 못한다는 것이다.

〈이천군향토문화총람 ; 전설편에서 전재. 제보자; 한승남〉

## 1-2) 양각산 치마대와 이사성

양각산(羊角山)은 마장면 북쪽에 위치하여 신둔면과 광주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두 개의 봉우리가 양(羊)의 뿔을 연상한다고 하여 양각산이란 산 이름이 유래되었다. 양각산에는 치마대(馳馬臺)라 부르는 바위가 있으니, 이 바위는 조선 영조 때 평안병사 이사성(李思晟)이 젊은 시절에 무술을 연마하던 곳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사성의 6대조에 이성임(李聖任)이라는 인물이 있으니,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강원, 경상관찰사를 지내고 임진왜란 때는 경상우도 순찰사로 활약했다. 일찍이 선조 대왕이 경회루에서 정시(廷試)를 베풀어 사예(射藝)를 겨룰 때, 활쏘기에 1등을 하여 특별히 임금으로부터 궁중에서 기르는 말 두 필을 하사 받아 중신들의 부러움을 산 일이 있다. 또한 글씨·문장·말·노래·용모가 모두 옥과 같이 뛰어났다고 하여 세상 사람들이 오옥선생(五玉先生)이라 칭송했다고 한다. 이성임은 대월면 군량리에서 태어나 자신의 호를 군량리 지역의 옛 명칭인 월량촌(月良村)에서 따다가 스스로 월촌(月村)이라 했다. 그의 묘소는 바로 치마대가 바라보이는 양각산 기슭에 썼다.

이사성은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무예의 솜씨가 뛰어나 타고난 장수의 기품이 있었다. 그가 청년시절에 웅지를 품고 치마대에서 무술연습에 몰두하던 중 하루는 설봉산 산정으로 말을 몰았다. 이사성이 설봉산 산정에 서서 멀리 양각산 치마대를 바라보니 끓어오르는 호연지기를 누를 길이 없어 문득 자신의 운세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이사성은 활을 들어 멀리 치마대를 향해 활시위를 날리고는 바람처럼 말을 몰아 화살의 뒤를 쫓았다. 만약 화살보다 자신이 탄 말이 먼저 도착한다면 평소 그가 마음속에 간직해온 웅지가 실현될 징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사성이 전속력으로 말을 달려

치마대에 이르러 보니 화살이 이미 날아와 박혀있는 것이 눈에 띈었다. 이사성은 그만 분을 참지 못하고 장검을 뽑아 화살보다 늦게 달린 말의 목을 후려쳤다.

그런데 그 때 머리 위에서 화살소리가 들리더니 그제 서야 화살이 날아와 쫓히는 것이 아닌가. 이사성은 그가 지난날에 쏜 화살을 보고 자신이 방금 전에 쏜 화살로 오인했던 것이다. 자신의 경솔한 판단으로 애마의 목을 벤 것을 그때 가서야 후회한 이사성은 이 일로 인해 자신이 품은 뜻이 실현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예감했다고 한다. 마침내 영조 4년(1728) 이인좌(李仁佐)의 난이 일어나자 같은 소론파이면서 평안도 관찰사 겸 병마절도사로 병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사성도 반란에 가담했다고 하여 처형되고 말았다.

이사성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는 군량리 '은행나무골'에는 이사성의 집터라고 전해오는 빈터가 있고, 동북간으로 수십 보 떨어진 논가에는 그가 어릴 때 마셨다는 우물이 있다. 또 군량 3리에 있는 '이만이재'는 이사성이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무술연습을 한 고개라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사성은 술사에도 능해 싸리비로 만든 말을 타고 다니며 기마술을 익혔다고 한다. 군량 3리 양화천(楊花川) 변에 '말바위'라 부르는 커다랗고 둥근 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이사성이 이만이재에서 이곳을 향해 활을 쏘고 말을 달려, 화살보다 늦게 도착한 말의 목을 벤 바위라고 하여 치마대와 비슷한 유형의 전설이 깃 들어 있다.

또 마장면에는 이사성과 관련된 전설이나 지명이 적지 않으니, 이것은 그가 비록 역신으로 몰려 처형을 당했을지라도 매우 비범한 인물이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마장면 작촌리에는 '나라모르기'라는 골짜기가 있으니, 사방이 높은 산줄기들로 둥글게 둘러 쌓여 나라에서도 알지 못하는 궁벽한 땅이라는 뜻이다. 이곳에도 일찍이 이사성이 은거하며, 군사들을 모아 전담을 개간하고 양병조련에 힘쓴 곳이라는 유래를 간직하고 있다.

<제보자: 임덕재;온라인무형문화지식사전>